

황룡사의 (皇龍寺) 공간형식 (空間形式) 변화와 내재적 의미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spatial Pattern and Inherent meaning of Hwangryong -sa

저자 (Authors)	홍광표 Kwang Pyo Hong
출처 (Source)	불교학보 34 , 1997.12, 381-399 (19 pages) BUL GYO HAK BO 34 , 1997.12, 381-399 (19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251
APA Style	홍광표 (1997). 황룡사의 (皇龍寺) 공간형식 (空間形式) 변화와 내재적 의미. 불교학보, 34, 381-3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20 10: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皇龍寺의 空間形式 變化와 內在的 意味

洪 光 杓

- | | |
|-----------------------|------------------------|
| I. 序 論 | III. 空間形式 變化의 意味와 作用因子 |
| II. 皇龍寺의 創建과 空間形式的 變化 | 1. 空間形式 變化의 內在的 意味 |
| 1. 皇龍寺의 創建 | 2. 空間形式 變化의 作用因子 |
| 2. 空間形式的 變化過程 | IV. 結 論 |

I. 序 論

佛教의 道場인 寺刹은 印度에서부터 발생하여 여러나라로 전파되는 過程에서 形式上의 多大한 變化¹⁾를 동반하게 되는 데, 이것은 佛教라는 새로운 宗教를 受容하였던 각 時代와 場所의 文化的 背景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現象이라고 할 수 있겠다.²⁾

韓國의 寺刹 역시 導入過程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外來形式要素가 우리의 독특한 文化的 特質 속에 융해되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固有素³⁾로 變化·定着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傳統寺刹의 形式에 外來的 造營文化가 韓國의 固有한 造營文化로 바뀌어 가는 系統性이 內在되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⁴⁾ 특히 韓國의 경우 傳統文化形成에 있어 佛教의 影響이 지대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韓國의 寺刹은 宗教의 造形物로서의 文化屬性은 물론 日常的이고 普遍的인

1) 특히 塔의 形態 規模, 位置, 數의 變化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 일반적으로 宗教의 觀點에서는 物質的인 造形藝術이 宗教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手段으로 認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形而下學의 概念인 宗教藝術에 대해 뚜렷이 규정한 敎理는 드물다.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p. 19.

따라서 佛教가 다른 지역에 전파될 때 결국 그 地域 固有의 文化性을 토대로 形式的 變化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造形의 形式이 劃一性을 탈피하고 地域的으로 多樣하며 土着의인 生命력을 부여한 動機가 되기도 하였다. Seckel, D., *The Art of Buddhism*(Greystone, 1968); 白承吉 譯, 『佛教美術』(悅話堂 美術選書 49, 悅話堂, 1985), p. 20.

3) 固有素란 文化的 전파에 의해 導入된 外來的 要素가 아닌 特定地域에 土着의, 鄉土的으로 自生하고 있는 原型的 脈絡의 傳來素에 해당된다. 그러나 絶對的 固有素란 있을 수 없으며, 文化的 전파에 의해 導入된 外來素가 그 地域의 文化的 特質 속에 융해되어 受容·定着하게 되면 그것은 固有素로 變化하게 된다. 즉, 傳來되어 온 文化樣相(固有素)과 전파되어 온 外來文化的 要素(外來素)가 서로 結合되면서 새로운 固有素가 生成되는 것이다. 鄭基浩, 「景觀에 介在된 內容과 形式的 解釋」(『韓國造景學會誌』19권 2호, 1991), p. 24.

4) 文化라는 것은 共時的으로나 通時的으로나 傳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文化라는 것이 本質的으로 意味作用과 傳達의 機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宋啟求, 『韓國의 옛 造形意味』(技文堂, 1987), pp. 7~10.

文化屬性도 아울러 갖추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韓國의 傳統寺刹은 우리나라의 造營文化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對象이 되고 있다.

佛敎가 導入된 이후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寺刹은 크게 세 차례의 形式變化過程을 거치게 된다. 그 첫번째 형식은 塔中心型으로서, 이는 佛敎가 導入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出現했던 形式이며 外來形式의 固有化가 채 이루어지지 못한 形式이다. 다음은 塔·金堂竝立型인데, 이는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고 난 이후 약 1세기 동안에 걸쳐 유행한 형식으로 外來形式의 틀을 어느 정도 벗어난 過度期的인 形式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出現했던 形式은 金堂中心型으로 이는 寺刹이 山地로 옮겨 가면서 이루어진 形式이며 山地中庭型이라고도 하는 바, 이 形式이야말로 新羅 末葉부터 시작되어 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寺刹의 典型으로 자리잡아 온 韓國傳統寺刹의 固有型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

이와 같은 세 가지 形式類型 가운데에서도 塔中心型 寺刹은 그 대부분이 創建時의 形式을 파악할 수 있는 直接·間接的 資料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그 당시의 精確한 空間形式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단지 이 類型에 속하는 寺刹들이 우리나라가 佛敎를 受容하는 段階에서 創建된 까닭에 寺刹의 形式은 佛敎를 전해준 中國의 影響을 받아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推論이 가능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塔中心型 寺刹 가운데에서도 代表性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皇龍寺에 대한 發掘調査⁶⁾가 이루어져 이제 이 類型의 空間形式에 대한 實質的인 解釋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미 發掘調査結果를 토대로 多數의 研究가 進行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皇龍寺를 對象으로 해서 이루어진 先行研究들은 거의 대부분이 佛敎學, 佛敎美術學, 建築學 혹은 考古學 分野의 研究들로서 研究의 內容은 皇龍寺의 創建歷史와 人物, 皇龍寺의 寺格, 皇龍寺 自體나 그 時代의 伽藍配置에 대한 特性 그리고 皇龍寺의 遺蹟과 遺物의 內容 등을 정리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볼 때 皇龍寺를 비롯한 塔中心型 寺刹의 空間形式에 대한 具體的인 理解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皇龍寺의 空間形式에 대한 파악이 곧 塔中心型 寺刹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傳統寺刹의 空間形式이 變化해 온 過程은 물론 造營의 解釋하

5) 洪光杓, 「新羅寺刹의 空間形式變化에 관한 研究」(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 論文, 1991).

6) 皇龍寺에 대한 調査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日帝強占期에도 文獻調査와 地表觀察을 통한 調査研究가 계속된 바 있었다. 그 代表的인 것은 勝島刻治郎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現地에서의 調査를 토대로 皇龍寺伽藍復原配置圖를 作成하여 發表하였다. 그 이후 皇龍寺에 대한 調査研究가 계속적으로 있어 오기는 했으나 부분적인 것이었고, 1969년에 文化財管理局과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이 합동으로 講堂址 一部를 發掘調査하였다. 그러나 이 調査는 충분한 計劃 없이 시작된 것으로 만족할 만한 結果를 거두지 못하고 調査를 完了하고 말았다. 本格的으로 發掘調査가 이루어진 것은 慶州觀光開發計劃의 일환으로 皇龍寺를 發掘調査하여 寺址의 全貌를 밝히고 發掘되는 資料를 토대로 寺址를 정비하여 遺蹟公園을 조성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비롯되었다. 이 計劃에 따라 發掘調査는 1976년 4월 20일 착수하여 8箇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987年末 完了되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皇龍寺配置의 形式變化를 알 수 있게 되었다. 趙由典, 「新羅 皇龍寺 伽藍配置에 관한 研究」(東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7), pp. 8~11.

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皇龍寺의 空間形式에 대한 분명한 解釋의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本 研究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皇龍寺가 創建時부터 最終伽藍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形式의 變化를 거쳐 왔으며, 그 形式의 變化에는 과연 어떠한 作用因子가 內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皇龍寺의 造營哲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解釋을 目的으로 進行되었다. 本 研究는 既存에 이루어진 發掘調査結果를 토대로 하여 皇龍寺의 變化過程에서 나타나는 空間形式을 中心性이라는 言語를 통해 解釋하는 研究方法을 통해 展開되었다.

II. 皇龍寺의 創建과 空間形式의 變化

1. 皇龍寺의 創建

皇龍寺는 佛教受容기에 해당하는 眞興王 14年(553)에 創寺가 시작되어 同王 30年(569)에 初創伽藍이 完成된 寺刹로서 그 立地는 王京의 中心部인 月城의 東側部 平地에 定해졌으며, 실로 新羅 最大라 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皇龍寺의 創建에 대해서는 『三國史記』, 『海東高僧傳』 및 『三國遺事』 등에 그 내용이 비교적 소상히 전해지고 있다. 그러한 諸 文獻에 실려 전해지고 있는 皇龍寺 創建에 관련된 내용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創建年代와 創建緣起에 관련된 內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春二月 王命所司 築新宮於月城東 黃龍見其地 王疑之改爲佛寺 賜號 曰皇龍(『三國史記』 4, 「眞興王 14年 2月條」).
- 眞興王 14年에 當堂觀청에 命하여 月城 東쪽에 新宮을 짓게 하였는데, 黃龍이 그곳에 나타났다. 王이 이상히 여겨 고쳐서 佛寺를 삼고 皇龍寺라 불렀다(『海東高僧傳』 1, 「法雲傳」).
- 新羅第二十四眞興王卽位十四年癸酉二月 將築紫宮於龍宮南 有黃龍現其地 乃改置爲佛寺 號黃龍寺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丈六條」).
- …… 眞興王癸酉創寺後 ……(『三國遺事』 卷3, 塔像4, 「皇龍寺九層塔條」)
- …… 按國史 眞興王卽位十四年 開國三年癸酉二月 築新宮於月城東 有黃龍現其地 王疑之 改爲皇龍寺(『三國遺事』 卷3, 興法3, 「迦葉佛宴 坐石條」)

위의 기사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皇龍寺가 眞興王에 의해서 造成된 寺刹이며, 그것의 創建年代가 眞興王 14年(553)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皇龍寺가 創建되던 眞興王 14年은 新羅가 對內的으로는 年號를 開國으로 고쳐 짓고(眞興王 12年) 새로운 國家의 建設을 罔원하던 때이며, 對外的으로는 百濟와 高句麗를 침공하여 영토를 넓

히 나가던 때로서 國家的으로 단합된 힘이 요구되던 時點이었다.⁷⁾

이것을 寺刹의 造營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皇龍寺가 創建된 時點은 아직까지 新羅 땅에서 寺刹의 造營이 활발하지 않았던 寺刹造營의 初期段階였으며, 그러한 까닭에 寺刹의 形式이 外來形式의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한편, 위의 기사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皇龍寺는 원래 宮闕을 지을 目的으로 지금의 터에 工事を 시작하였으나, 그 땅에서 黃龍이 出現한 까닭에 宮闕을 절로 고쳐서 지은 사찰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로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먼저 創建緣起를 다분히 說話의인 內容으로만 받아들여, 그 내용을 皇龍寺 創建을 合理化시키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⁸⁾ 이렇게 볼 때, 皇龍寺는 처음부터 創建計劃이 있었으며, 그 計劃에 따라 工事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 경우에 皇龍寺의 空間形式은 中國의 寺刹이나 佛敎가 먼저 傳來된 高句麗 혹은 百濟寺刹의 空間形式을 原形으로 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위의 기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인데,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佛敎傳來初期의 우리나라 寺刹形式이 宮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宮闕을 지으려고 하다가 黃龍이 출현하였다고 해서 大役事를 쉽게 寺刹로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은 構造的으로 兩者가 類似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中國의 寺刹形式이 宮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寺刹이나 宮闕의 造營이 中國의 影響을 받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아 이해가 가능하다. 이상의 두가지 경우 모두 皇龍寺의 初創形式에 특별한 造營原理가 介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한편, 皇龍寺의 竣工에 관련된 內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祇園・實際二寺成 …… 皇龍寺畢功(『三國史記』4, 「眞興王 27年 2月條」).
- 眞興王 27년에 祇園, 實際의 두 절을 이루었는데, 皇龍寺도 또한 工事を 끝냈다(『海東高僧傳』1, 「法雲傳」).
- …… 至乙丑年 周圍牆宇 至十七年 方畢 ……(『三國遺事』卷3, 塔像4, 「皇龍寺丈六條」).

7) 皇龍寺의 創建工事が 시작되기 2년전인 眞興王 12年(551)에 新羅는 年號를 開國이라고 고쳐 지었으며, 對外的으로는 高句麗와 百濟의 영토를 침공하여 한강 상류의 10郡을 취한 바 있다. 또한 皇龍寺를 짓기 시작하는 眞興王 14年(553) 7月에는 百濟가 차지하고 있던 漢江 下流地域을 공격하여 취하였으며, 이어 23年(562)에는 대가야를 차지하는 등 국가적으로 단결된 힘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皇龍寺가 創建되는 것은 佛力을 통해 三國統一을 이루려는 眞興王의 의지가 표현된 결과로 보여진다. 李基白, 『韓國思想史 研究』(一潮閣, 1991), pp. 62~67.

8) 皇龍寺 創建緣起에 나와 있는 이 內容은 국가적 대단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왕이 당시의 비약한 자신의 입장과 慶州 門閥貴族勢力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黃龍을 등장시키므로써 대가람 창건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치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므로써 王은 皇龍寺를 의도한 대로 지을 수 있었으며, 그것을 통해 國家的인 大團合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三國史記』와 『海東高僧傳』에는 皇龍寺의 完成年度가 眞興王 27年(566)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三國遺事』에서는 乙丑年 즉, 眞興王 30年(569)으로 나타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三國遺事』에서 말하는 完成年度는 주위의 牆宇를 완성한 것까지 합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앞의 두 문헌과 『三國遺事』의 기사내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空間形式의 變化過程

皇龍寺의 空間形式은 發掘調査 結果를 토대로 하여 볼 때, 眞興王 30年(569) 創建伽藍이 完成된 때로부터 高麗 高宗 25年(1238)에 兵禍로 소실될 때까지 그림 1~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크게 5次의 變化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⁹⁾

1) 創建伽藍

創建伽藍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등의 記錄¹⁰⁾으로 볼 때, 眞興王 14年(553)에 工事を 시작하여 27年(566)에 塔과 建物 등 中心部分이 造營된 後 畢功하여 다시 30年(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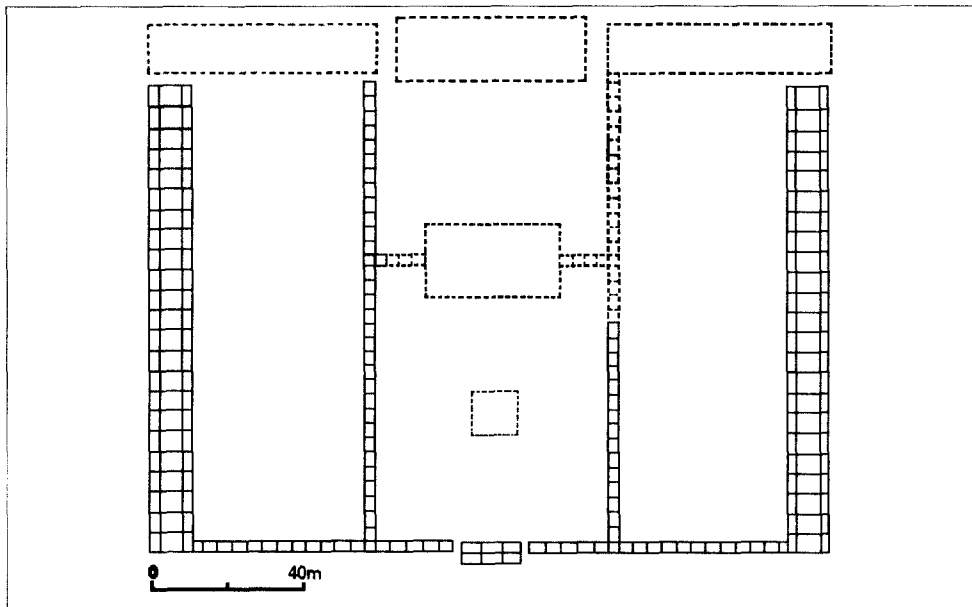


그림 1. 皇龍寺 創建伽藍 配置圖(眞興王 30年 : 569)

9) 趙由典, 前掲論文(1987), pp. 182~199.

10) 『三國史記』卷4, 新羅本記4, 「眞興王 14年條」, 「27年條」; 『三國遺事』卷3, 塔象3, 「皇龍寺丈六條」, 興法3, 「迦葉佛宴坐石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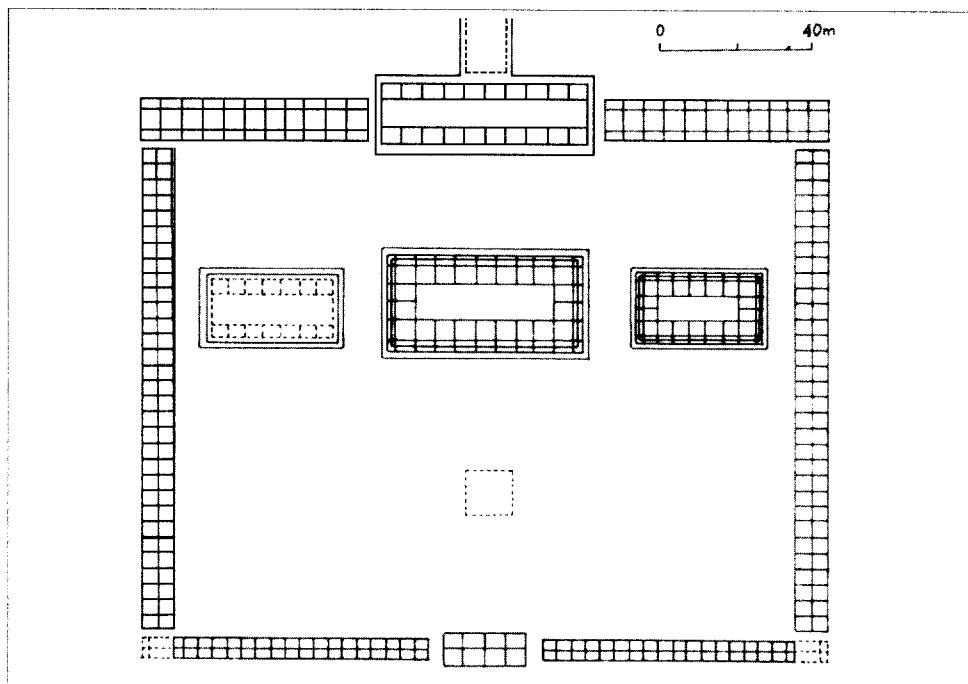


그림 2. 皇龍寺 2次伽藍 配置圖(眞平王 6年 : 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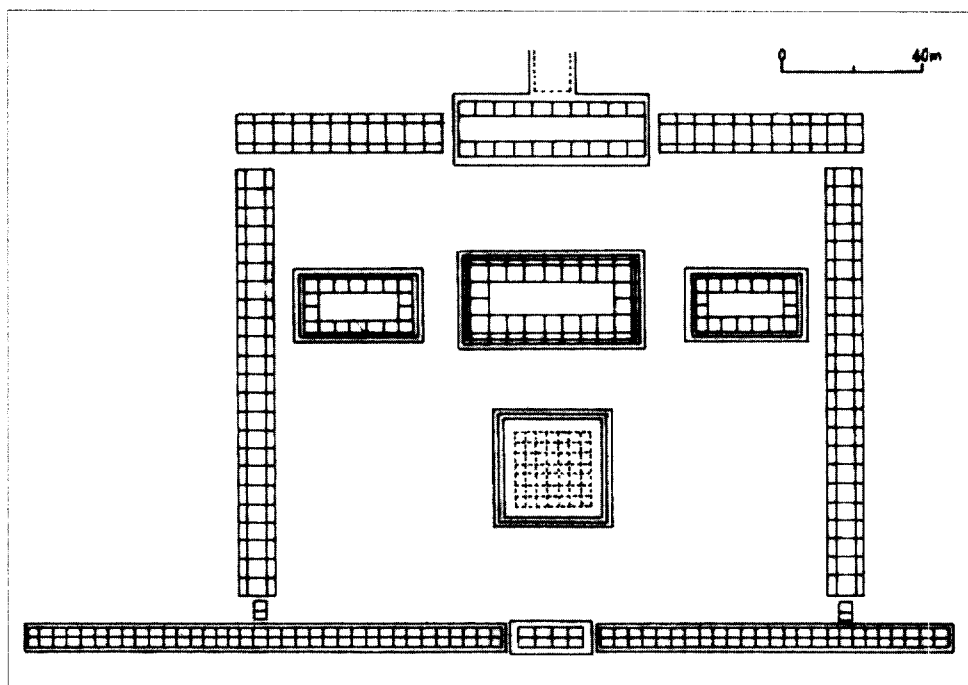


그림 3. 皇龍寺 3次伽藍 配置圖(善德女王 14年 : 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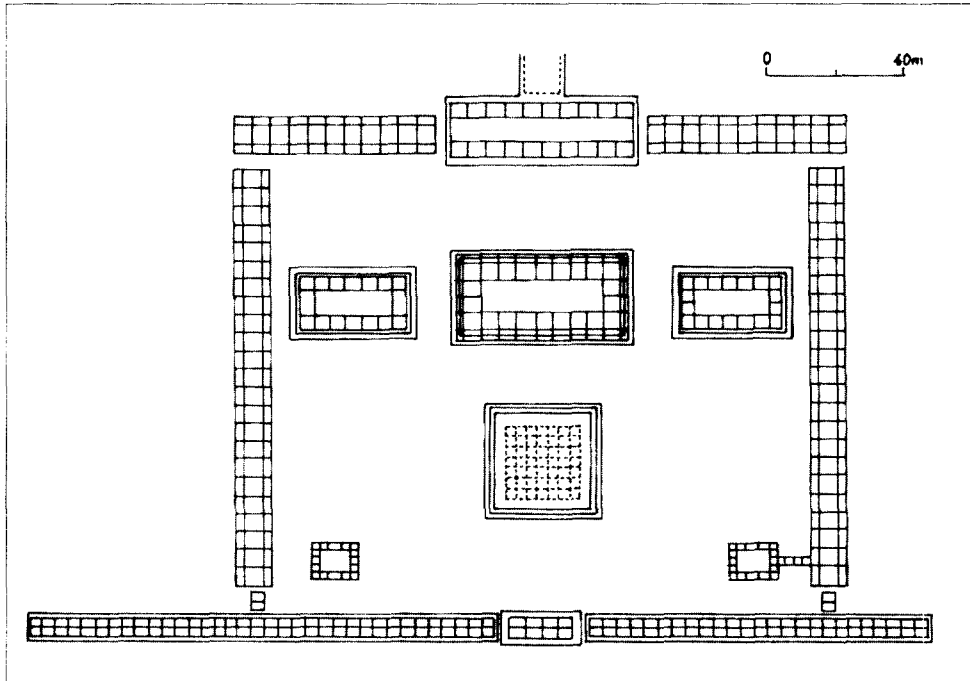


그림 4. 皇龍寺 4次伽藍 配置圖(景德王 13年頃 :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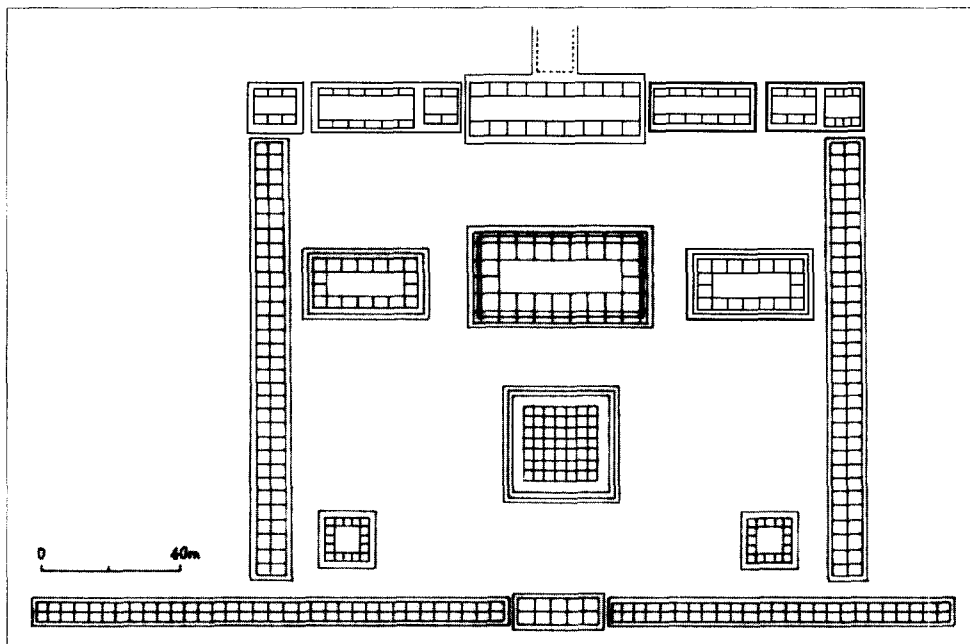


그림 5. 皇龍寺 最終伽藍 配置圖

(新羅 景文王 13年頃 : 873~高麗 睿宗 元年 : 1105)

에 周圍牆宇를 만들어 17年만에 完工한 상태의 寺刹이다.

發掘調査結果 創建伽藍은 中門과 塔, 金堂, 講堂이 南北 一軸線上에 位置하고 있으며, 그것을 南廻廊과 東西廻廊이 둘러싸고 있는 定型式 寺刹로서 그 平面形式은 南北邊이 東西邊에 비해 약 2배 가까운 매우 가늘고 긴 長方形을 이루고 있다. 또한 東西廻廊 左右에는 역시 같은 比率의 空間이 있어 그 東西端에는 僧房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즉, 皇龍寺 創建伽藍은 比率이 1:2.1 정도의 거의 같은 規模를 가진 긴 空間 3개를 나란히 配置한 構成形式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塔과 金堂은 3개의 空間中 가운데 空間에 位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創建伽藍의 形式은 당시의 中國寺刹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어진 高句麗와 百濟의 寺刹들과 形式上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塔을 中心으로 하여 全體의 空間이 組織化되는 樣式을 취하고 있다.

2) 2次伽藍 : 金堂이 重建된 伽藍

2次伽藍은 眞興王 35년(574)에 조성된 金銅丈六尊像¹¹⁾의 봉안을 위해서 眞平王 6年(584)에 金堂을 重建하면서 이루어진 形式이다.

發掘調査結果에 따르면 2次伽藍은 처음 中金堂이 建立되고 이어 東·西金堂이 建立되었으며, 거의 같은 시기에 重建中門 및 複廻廊으로 된 南廻廊이 完成되는 過程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즉, 2次伽藍은 1次伽藍에 비해 각 건물들의 규모가 커짐은 물론 그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空間의 構造가 整備된 伽藍이다. 그 空間의 構成은 1次伽藍과 마찬가지로 中門-塔-金堂-講堂이 南北軸線上에 一直線으로 配置되는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中門 左右에서부터 講堂 左右에 이르는 廻廊이 全空間을 둘러싸는 形式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次伽藍이 하나의 金堂으로 形成되었던 것에 반해서 2次伽藍은 金堂의 규모를 확장하고 그 金堂 左右에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東金堂과 西金堂을 가진 三金堂으로 變化된 特徵의 局面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 1次伽藍에서 나타났던 廻廊이 소멸되고, 南北으로 길게 놓였던 僧房으로 보이는 建物の 前面 退間을 東西廻廊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3次伽藍 : 木塔이 重建된 伽藍

金堂의 重建에 이어서 9層 木塔이 善德王 12年(643)에 起工되어 2年 후인 14年(645)에 竣工된다. 3次伽藍은 바로 이 시기의 伽藍으로서 이때 中門과 南廻廊이 남쪽으로 약 6.3m 더 내려와서 重建되며, 中門의 移動에 따라 南廻廊도 移動되어 重建된다. 이때까지는 鐘樓와 經樓가 아직 新設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3次伽藍은 9層木塔이 造

11) 『三國遺事』卷3, 塔像4, 「皇龍寺丈六條」.

成되면서 이루어진 伽藍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4次伽藍 : 鐘樓와 經樓가 新設된 伽藍

4次伽藍은 重建伽藍의 東西廻廊이 마치 처음 計劃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複廻廊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鐘樓와 經樓일 것으로 생각되는 平面이 東西로 좀 긴 長方形의 두 건물을 九層木塔의 동남쪽과 서남쪽에 配置한 때의 伽藍으로서 이 시기에 와서 皇龍寺의 伽藍配置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 시기는 三國遺事에 기록된 皇龍寺 鐘樓의 조성사실로 보아 景德王 13年(754) 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最終伽藍

皇龍寺가 高麗 高宗 24年(1238)에 소실될 때까지 남아 있었던 마지막 伽藍으로서 中門은 4次伽藍時의 자리에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鐘樓와 經樓로 생각되는 건물은 그 자리에서 正方形平面의 建物로 改造되고, 東廻廊과 西廻廊이 複廊으로 바뀌어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塔과 三金堂 등 주요부분에 대한 變化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4次伽藍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구조를 가진 伽藍으로 생각된다. 最終伽藍은 新羅 景文王 13年(873)을 전후하여 高麗 睿宗 元年(1105)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Ⅲ. 空間形式 變化의 意味와 作用因子

1. 空間形式 變化의 內在의 意味

앞에서 언급한 發掘調査結果를 토대로 볼 때 皇龍寺의 空間形式에서는 全空間의 構造를 달리 認識할 정도의 變化가 2번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初創伽藍으로부터 2次伽藍으로의 변화이며, 두 번째는 2次伽藍으로부터 3次伽藍으로의 變化이다. 나머지 4次伽藍이나 最終伽藍으로의 變化는 그 정도가 미미하여 全體空間의 構造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두 차례의 形式變化가 일어나게 된 이유와 그것에 內在된 意味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寺刹의 形式變化는 우연히 이루어진 結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漸進的이고 契機的인 側面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次伽藍은 丈六尊像을 모시기 위한 金堂의 重建이 作用因子가 되어 이루어진 形式이다. 즉, 2次伽藍은 丈六尊像을 모실 金堂이 重建된 후 이어서 東·西金堂이 建立된 결과로 나타난 형식인 것이다. 결국 2次伽藍의 空間形式은 重建된 金

堂에 맞추어서 全體寺刹의 構造가 바뀌고 규모가 확장되어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2次伽藍의 空間形式은 丈六尊像의 造成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史記』의 기록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즉, 『三國史記』의 記錄에 따르면 丈六尊像은 眞興王 35年(574) 3월에 造成되어진 佛像이다.¹²⁾ 이 기록으로 보아 丈六尊像은 皇龍寺가 初建되고 난 4년후에 造成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이 丈六尊像을 모실 金堂이 미리 마련되어졌다는 記錄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면 丈六尊像이 조성되고 난 후 그 佛像을 모실 場所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丈六尊像의 규모로 봐서 그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을 것이며 이 過程에서 皇龍寺에 佛像을 모실 計劃을 세우고 金堂을 重建하게 되는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것을 보면 2次伽藍에서 金堂이 重建되는 것은 金堂 自體의 重要性 때문이 아니라 결국 그 金堂에 모셔질 丈六尊像이 가진 重要性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丈六尊像의 造成이 없었다면 金堂은 1次伽藍時의 金堂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었으며, 空間構成에 있어서 다른 變化가 없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즉, 2次伽藍에서 이루어진 金堂의 重建은 특별한 작용에 따라 이루어진 結果라는 것이다.

한편, 세 번째 變化의 結果인 3次伽藍은 皇龍寺 九層塔의 造成으로 인해 나타난 形式이다. 『三國遺事』 卷3, 塔象4, 「皇龍寺 九層塔條」에는 이 皇龍寺 九層塔의 造成에 관한 說話가 전해진다. 즉 慈藏이 중국에 留學하고 있을 때 大和池가에서 神人을 만나는데 新人이 말하기를 “지금 그대의 나라는 女子를 王으로 삼았으니 德이 있어도 威嚴이 없고, 그러한 때문에 이웃나라에서 侵略을 圖謀하는 것이니 (中略) 本國에 돌아가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우게 되면 이웃나라들은 항복할 것이며, 九韓이 와서 朝貢하여 王業이 길이 편안할 것이요(後略)”라고 했다는 것이다.

『三國遺事』에 傳해지고 있는 이러한 說話의 內容으로 볼 때 이 皇龍寺 九層塔은 단순히 善德王의 權威를 높이고, 이웃나라의 侵略을 막기 위한 發願으로 세워졌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물론 당시의 時代相으로 볼 때 이러한 說話의 內容에 따라 皇龍寺 九層塔이 세워졌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당시 塔求心の 寺刹形式이 一般的이었던 唐에서 留學을 하고 부처님의 眞身舍利를 가지고 돌아온 慈藏에 의해서 塔이 造成된다는 사실¹³⁾을 놓고 볼 때 皇龍寺 九層塔 造成에는 또 다른 意味

12)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4, 「眞興王 35年條」.

한편, 『三國遺事』 卷3, 塔象4, 「皇龍寺丈六條」에는 이 丈六尊像의 造成에 얽힌 說話가 전하여지고 있는데 遺事所傳 說話의 內容을 간추리면, 西竺 阿育王이 佛陀의 眞身에 供養 못한 것을 恨하여 불상을 造成코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有緣 國土에 이르러 丈六佛像의 尊容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祝願과 함께 金鐵과 三尊像의 모형을 배에다 싣고 바다에 띄웠는데 그것이 河曲縣의 絲浦(蔚山의 谷浦)에 닿아 드디어 丈六尊像을 造成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說話의 內容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이 說話의 價値는 新羅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新羅야말로 東方의 眞佛國”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皇龍寺 九層塔이 造成되기 以前의 2次伽藍은 金堂이 重建되어 전체 空間構造上에서 塔의 意味가 弱化된 空間形式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皇龍寺 九層塔 造成의 意味를 사찰의 형식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다 複合的인 意味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2. 空間形式 變化의 作用因子

皇龍寺의 空間形式 變化過程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皇龍寺 空間形式에서 나타났던 2차례의 變化라는 것은 空間構成의 中心性에 관련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皇龍寺는 불가피하게 발생된 영향에 의해 2次伽藍으로 變化되는 過程에서 空間構成上에서 塔이 가지고 있던 中心性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며, 塔에 대한 空間構成上的 中心性 回復을 위해 다시 3次伽藍으로의 變化가 意圖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皇龍寺의 空間形式 變化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因子가 作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 慈藏과 皇龍寺 九層塔 重建

皇龍寺의 空間形式이 2次伽藍으로부터 3次伽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慈藏이 中國으로부터 귀국하여 皇龍寺 九層塔을 重建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皇龍寺 空間形式 變化에 대한 意味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皇龍寺 九層塔 重建과의 相關關係를 이해해야 될 것이며, 皇龍寺 九層塔 重建의 意味解釋을 위해서는 塔에 대한 意味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의 佛塔은 부처님의 舍利가 奉安된 것으로 이것을 대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意味가 있었으며,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佛塔이 곧 佛教信仰의 主對象이었다. 그러므로, 初期佛教寺院에서 가장 聖스러운 곳(至聖所)의 中心은 stupa였다.¹³⁾ 이러한 古代印度의 stupa는 佛教가 東아시아로 傳來되면서 pagoda라고 불리우는 變形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pagoda는 그것이 가진 意味나 寺刹에서 차지하는 比重 그리고 空間上에서의 位置 등에 있어서 初期 stupa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으나, 단지 中國의 pagoda가 보통 木造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差異點을 발견할 수 있다.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本來의 佛塔이 가진 象徵性은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例外

13) 慈藏은 滯唐 5年만인 善德女王 12年(643) 善德女王의 要求에 의하여 佛舍利 등 福利가 될만한 것은 모두 청하여 가지고 귀국하였다. 즉 『三國遺事』의 記錄(卷3, 塔象4, 「前後所將舍利條」)에 따르면 佛頭骨, 佛牙, 佛舍利 百粒, 佛所著, 絳羅金點袈裟 一領과 藏經 一部, 幡幢, 花蓋 등이 그것이다. 歸國後 그는 女王과 상의하여 百濟의 阿非知를 청해서 皇龍寺 九層塔을 初創伽藍의 塔자리에 세우고 歸國時 가지고 들어와 三分한 舍利中 一分을 이곳에 奉安하게 된다. 한편 나머지 二分은 各各 通度寺 金剛戒壇과 太和寺塔에 奉安한다.

14) Seckel, D.(1968) : 白承吉 譯, 前掲書(1985), p. 119.

는 아니었다. 즉, 塔을 意味하는 말로 쓰인 ‘佛圖’ 또는 ‘浮圖’가 佛寺 自體를 意味하는 단어로도 쓰여질 만큼 중국에서는 塔과 寺가 거의 동격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것으로 보아 중국의 寺刹에서 塔이 가진 意味의 重要性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⁵⁾ 실상 後漢의 滅亡에서부터 三國時代(220~265)와 西晉(265~316)에 걸쳐 中國의 佛寺는 塔中心의 寺院이었고 寺의 意味가 ‘塔을 모시는 곳’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塔이 가진 意味는 그대로 전해져서 初期佛敎의 信仰對象은 주로 塔이었다. 이것은 塔 자체보다는 塔에 안치된 舍利에 대한 意味를 중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三國遺事』 卷3, 塔象4, 「前後所將舍利條」에 보면 眞興王이 佛舍利를 奉迎하기 위해 百官과 더불어 興輪寺 앞길에 나가 친히 받들어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보면 당시 新羅人들에게 받아들여졌던 舍利信仰과 그 舍利가 奉安되던 塔의 重要性이 어느 정도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慈藏이 中國으로부터 가져온 舍利를 安置하기 위해 皇龍寺 九層塔을 重建하는 것은 塔이 가진 意味를 보다 具體化하기 위한 意圖가 內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皇龍寺 九層塔 重建이 女王의 권위를 높이고 九國을 制壓하기 위한 發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內面에는 보다 중요한 意味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慈藏이 滯唐 留學時에 접한 中國寺刹에서 나타나는 塔이 가진 中心性에 대한 認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慈藏은 自身이 認識한 그와 같은 塔의 中心性을 皇龍寺에서 再現해 보고자 하는 意圖를 가졌을 것이며, 귀국 후 그러한 의도를 실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실행에 옮겨 皇龍寺 九層塔을 重建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推論은 慈藏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慈藏의 행적 가운데에서도 특히 通度寺의 創建과 金剛戒壇의 造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자장이 皇龍寺 九層塔을 重建한 이듬해인 善德女王 15년(646)에 通度寺 金剛戒壇을 쌓고 通度寺를 始創했으며, 더 나아가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佛舍利를 三分하여 皇龍寺 九層塔과 通度寺 金剛戒壇 그리고 蔚山 太和寺 塔에 각각 봉안했기 때문이다.¹⁶⁾ 즉, 皇龍寺 九層塔의 重建과 通度寺 金剛戒壇의 造成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이다.

通度寺 事蹟記에 따르면 通度寺는 創建時 金剛戒壇과 大雄殿, 大光明殿 그리고 靈山殿이 세워짐으로써 寺域이 形成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大雄殿, 大光明殿, 靈山殿 등 殿閣의 名稱은 후일에 붙여진 것이므로 사실상 通度寺에 처음부터 이러한 건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慈藏에 의해서 通度寺에 金剛戒壇이

15) 金聖雨, 「東아시아 佛敎의 最初形式」(大韓建築學會 論文集 3권 3호, 1987), pp. 112~113.

16) 이와 더불어 芬皇寺 模塼塔 역시 慈藏이 唐에서 보고 익힌 塼塔을 모방하여 建立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 3. 新羅의 廢寺 1』(一志社, 1974), p. 95.

이것을 볼 때 慈藏은 中國으로부터 돌아온 後, 塔의 造營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생각을 皇龍寺, 通度寺, 芬皇寺 등에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

皇龍寺 九層塔 造成 以後에 通度寺에서 金剛戒壇을 쌓은 慈藏의 이러한 행적으로 보아 新羅國利 皇龍寺는 無衣子 眞覺國師의 식귀²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性格을 같이 하는 精神的 結束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곧 동일한 佛舍利 分安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¹⁾ 따라서 慈藏이 가지고 있었던 皇龍寺 九層塔 重建의 意圖는 분명 寺刹에 있어서 '塔의 中心的 意味의 表現'이라고 해도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慈藏에 의해서 主導된 3次伽藍 重建의 意味는 塔의 中心性 回復에 그 비중이 두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2) 佛教傳來期の 寺刹形式과 塔의 中心性

한편, 皇龍寺가 創建되고 空間形式이 變化하던 당시의 寺刹形式과 그것에서 나타나는 塔의 中心性을 理解하는 것 역시 皇龍寺 空間形式의 變化過程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印度寺院의 原始形은 舍利塔인 stupa이며, 이것은 거대한 露塔形式이었다(그림 7).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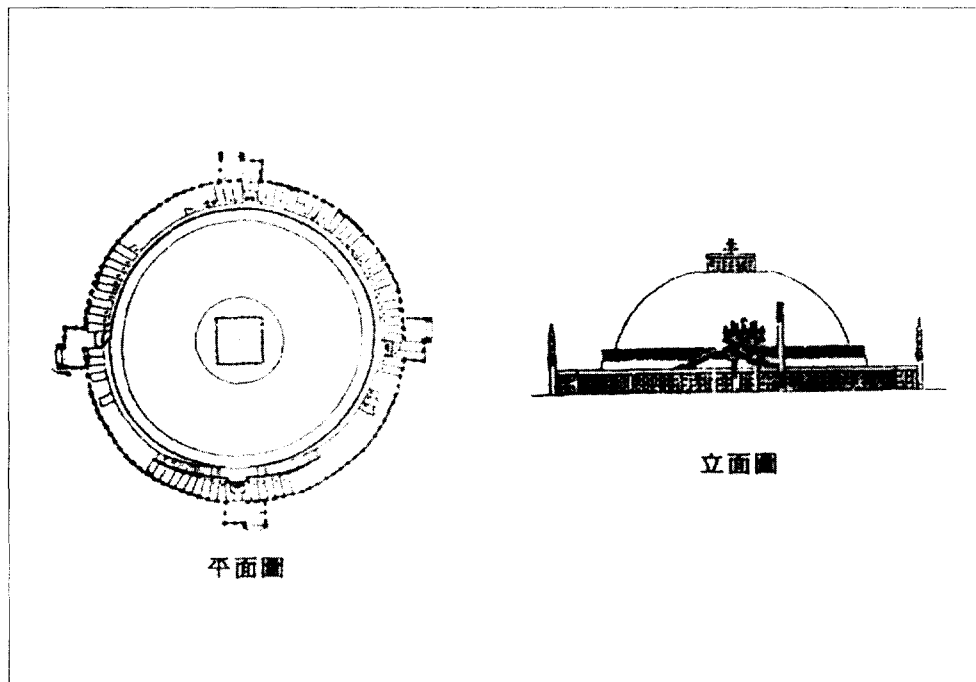


그림 7. 印度 산지의 스투파²²⁾

18) 資料: 蔚山王대 建築科, 『通度寺伽藍配置 實測調査報告書』(1980).

19) 資料: 林忠伸, 「通度寺 金剛戒壇의 營造尺度 考察」(『靈鷲佛教文化研究院 定例學術심포지움 論文集』, 1991).

20) 「釋迦舍利鎮高壇, 覆釜繞邊有火殿」.

21) 張忠植, 「通度寺 佛舍利傳來考」(『第3次 靈鷲佛教文化研究院 定例學術심포지움 論文集』, 1991), pp. 11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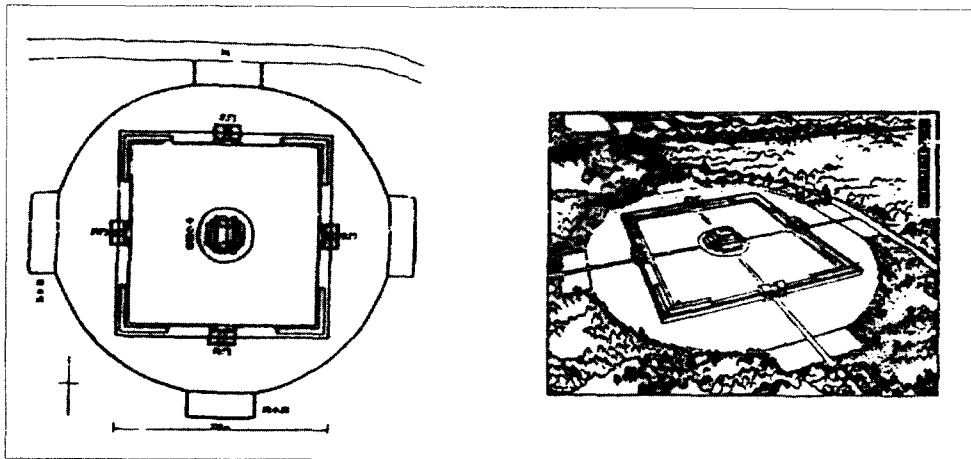
22) 金聖雨, 前揭論文, 1987, pp. 107 ~ 108.

후 caitya²³⁾와 vihara寺院²⁴⁾이 나타나는데 이들 印度初期寺院들은 모두 塔을 中心으로 形成되는 空間形式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中國寺刹의 경우에도 塔을 中心로 形式化되는 것은 印度와 마찬가지로였다. 이때 塔의 形態는 달라져서 中國式 pagoda形式을 가지게 되나 內部에는 역시 부처님의 舍利를 모시는 것으로 봐서 塔이 취한 意味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中國의 初期寺刹이 가진 形式을 알 수 있는 資料는 책옹의 부도사에 관한 것이다. 浮圖祠에 관한 內容이 전해지는 『三國志』와 『後漢書』를 토대로 살펴볼 때 浮圖祠는 2層(重)으로 된 建物(樓)과 삼천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廻廊(閣道)으로 형성되어 있고 2層建物の 지붕 위에는 9層의 靑銅盤(점시모양의 輪)이 올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 浮圖祠는 2세기 말경에 築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建築形態가 木造樓閣塔婆로서 意味論적으로 볼 때 佛殿의 起源을 이루고 있으며, 形態論적인 觀點에서는 塔婆의 起源을 이룬 複合적인 內容의 建築形態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浮圖祠



配置 平面圖

復原圖

그림 8. 西漢 長安의 禮制建築址²⁶⁾

23) 「차이티야」의 梵語音讀은 制多이며, 佛經에서는 古制, 制底 등 많은 音讀이 있다. 「차이티야」는 建物이라는 점에서 「스투파」와 구별되는데, 印度에서 現存하는 制多是 「스투파」가 内部에 安置되어 있다. 이것을 볼 때 옛날 印度에서는 佛殿閣 또는 石窟内部에 佛像 대신 「스투파」를 安置하고 信仰의 對象으로 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이티야」는 韓國의 佛殿 및 石窟의 原始形이라고 볼 수 있다. 金正秀, 「韓國의 宗教建築에 관한 研究」(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p. 9.

24) 한편 「비하라」는 「차이티야」寺院의 규모가 확장되고 佛敎徒가 늘어남에 따라 阿育王朝(B.C. 268~232) 이후 造營되는데, 이 비하라는 승려들이 기숙하면서 修道하던 修道院形式의 石窟寺院을 지칭한다. 「비하라」寺院의 종류는 「차이티야」와 마찬가지로 平地型和 石窟型이 있으나, 平地型은 기초만 남아있어 그 原形을 解釋할 길이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비하라」寺院의 形式은 그 대부분이 石窟寺院으로서의 「비하라」이다. 한편 「비하라」寺院에는 純僧房만으로 이루어진 것과 「스투파」를 모신 佛殿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平面形式은 中庭을 中心으로 四邊에 僧房이 둘러막혀 配置되는 方形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며 圓形으로 配置될 때도 있다(그림 8참조).

25) 資料: 金正秀, 「韓國의 宗教建築에 관한 研究」(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74), p. 7.

26) 資料: 上揭論文, p. 110.

가 中國에 세워진 最初의 寺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中國初期의 寺刹은 이러한 形式을 취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金聖雨는 여러가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 浮圖祠의 形式이 西漢 長安의 禮制建築址의 配置形式(그림 8)과 유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⁷⁾

浮圖祠에 대한 기록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진 中國資料로서 분명한 佛寺配置計劃의 變化를 보여주는 것은 六朝時代(222~589) 北朝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北魏(386~534)의 首都 洛陽에 있었던 佛寺들에 관한 기록인 洛陽伽藍記²⁸⁾이다. 洛陽伽藍記는 비교적 중요했었거나 잘 알려졌던 寺刹들을 中心으로 城內, 城東, 城西, 城南, 城北으로 나눈 다섯 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洛陽伽藍記의 內容中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기록은 永寧寺에 관한 것인데, 永寧寺는 洛陽城의 正門인 창합문 남쪽 御道の 서쪽에 있었던 寺刹로서 洛陽伽藍記에 기록된 內容을 토대로 類推해 본 寺刹의 形式은 다음과 같다.²⁹⁾ 즉, 寺院은 中心部에 9層의 거대한 木塔이 있고 그 뒤에 佛殿이 있으며 塔과 殿은 廻廊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또한 廻廊의 四面에는 門이 하나씩 있었고 廻廊 밖으로 下間이 넘는 부속건물이 있다. 이 內容을 볼 때 永寧寺의 核心的인 象徵性은 역시 塔과 殿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塔이 더 中心的인 位置에 있었고 象徵性이 더 강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것은 中國의 경우 6세기 초까지는 塔이 境內의 유일한 構築物이었던 傳統이 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新羅의 初期寺刹의 形式에 決定的인 作用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高句麗寺刹의 形式 역시 塔中心의 空間構成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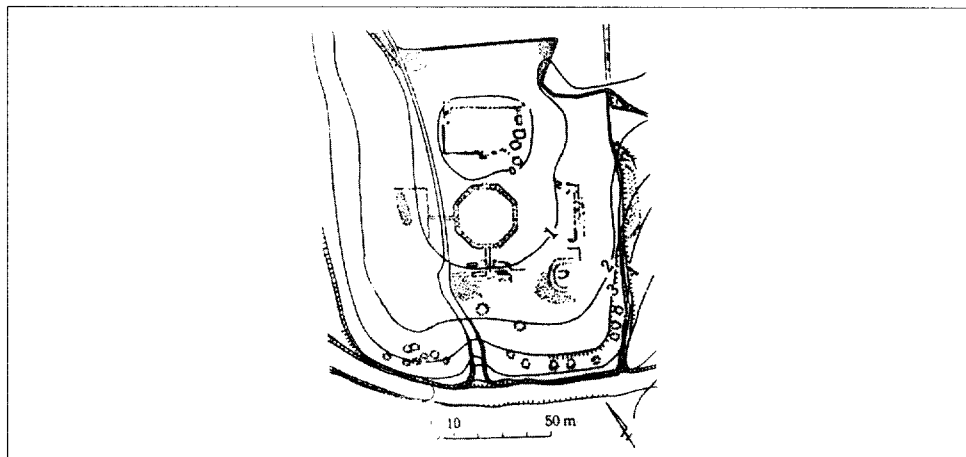
高句麗寺刹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淸岩里寺址는 發掘調査結果 넓은 臺地위에 造成된 南西向한 寺刹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寺刹의 配置는 南北軸을 中心으로 中央에 佛塔址로 생각되는 八角殿址가 놓였으며 그 東, 西, 北側에 金堂址로 생각되는 세개의 建物이 配置되고 南側에 門址로 보이는 建物이 위치하는 1塔 3金堂形式으로 나타났다(그림 9 참조). 이 淸岩里寺址의 配置形式을 토대로 高句麗寺刹의 形式은 일반적으로 1塔 3金堂形式이 典型이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元五里寺址는 發掘調査結果 그 遺構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配置形式을 알 수가 없으며, 上五里寺址³⁰⁾는 調査過程에서 中心에 八角塔址와 東·西側에 建物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淸岩里寺址와 동일한 1塔 3金堂形式으로 간주하고 있다.³¹⁾

27) 上揭論文, pp. 109~112.

28) 洛陽伽藍記의 著者 楊衒之로서 北齊사람이었으며, 北魏를 이은 東魏에서 벼슬을 한 사람이다. 그는 北魏 滅亡後 547년에 洛陽에 가서 찬란했던 佛寺들이 戰亂에 소실된 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 舊聞을 모으고 故跡을 추적하여 이 책을 지었다고 한다. 金聖雨, 「北魏 永寧寺와 三國時代의 佛寺」(大韓建築學會 論文集, 1987②), p. 121.

29) 上揭論文, pp. 123~125.

그림 9. 清岩里寺址 實測配置圖³²⁾

또한, 定陵寺址는 中央의 塔址 左右에 하나씩 塔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建物址가 있으며 그 북쪽으로는 廻廊을 넘어서 세개의 建物址가 옆으로 나란히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 寺刹의 配置形式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高句麗의 典型的인 1塔 3金堂形式과 같지는 않으나 中心에 八角塔이 있음은 앞의 두 寺刹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³³⁾

결국 지금까지 알려진 研究結果를 토대로 볼 때 高句麗寺刹의 形式에서 共通의 現象은 八角塔을 中心으로 주위에 金堂이 塔을 향해 配置된다는 점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清岩里寺址와 같은 1塔 3金堂形式으로 정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것이 高句麗寺刹의 典型的인 形式이었던 것은 분명한 듯하다.

이러한 塔中心의 配置는 百濟의 軍守里寺址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發掘調査結果를 토대로 볼 때 軍守里寺址의 配置는 南北軸線을 따라 中門址, 塔址, 金堂址 그리고 講堂址가 一軸線上에 配置되는 形式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으로 中門址와 講堂址를 연결하는 廻廊과 講堂址 左右에는 廻廊에 면해 鐘樓와 經樓로 보여지는 작은 建物址가 있고 金堂 左右에는 廻廊밖으로 각각 하나씩의 建物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新羅寺刹의 形式에 原形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印度, 中國 및 高句麗,

30) 上五里寺址에 대한 調査報告는 齊勝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上五里寺址의 配置形式을 1塔 3金堂式으로 보아 왔다. 齊勝忠, 「平壤大同郡林原面上五里高句麗建築址의 調査」(『考古學雜誌』 제30권 1호, 1940), p. 40.

그러나 최근에 金聖雨는 이 上五里寺址가 清岩里寺址보다 먼저 이루어진 2金堂形式의 寺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만약 金聖雨의 주장과 같이 上五里寺址가 3金堂形式을 낳게한 形式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學說은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金聖雨, 「3金堂形式의 展開」(『大韓建築學會 論文集』 제6권 1호).

31) 米田美代治, 『朝鮮上代建築の研究』(1944); 申榮勳 譯, 『韓國上代建築의 研究』(東山文化社, 1976), p. 136.

32) 資料: 尹張燮, 『韓國建築史』(東明社, 1973), p. 58.

33) 金聖雨는 定陵寺址의 配置形式이 上五里寺址의 形式(2金堂式)과 清岩里寺址의 形式(3金堂式)을 연결해주는 過渡期的 形式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金聖雨, 前揭論文(1990).

百濟의 寺刹形式들을 살펴 본 결과 당시의 寺刹은 분명히 塔을 中心으로 形式化되는 空間構成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佛教發生國인 印度에서 金堂에 佛像이 安置되어 寺院의 中心이 stupa에서 佛殿으로 옮겨지는 시기가 7C 중반이고 中國의 경우 6세기 초까지 境內에 塔이 유일한 建築物이었으며 그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이러한 傳統을 繼承하여 塔을 中心으로 空間이 構成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皇龍寺의 空間構成도 例外는 아니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IV. 結 論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皇龍寺의 空間形式이 몇 번의 變化를 일으키던 당시에는 분명히 塔이 信仰의 中心이었으며 더불어 寺刹의 空間構成에서도 이 塔이 中心이 되어 全體의 構造를 決定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皇龍寺 2次伽藍으로부터 3次伽藍으로의 變化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皇龍寺 九層塔의 造成은 당시의 寺刹들과 마찬가지로 塔의 中心性을 回復하고자 하는 意圖에서부터 비롯된 計劃的인 作業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皇龍寺의 空間形式 變化는 塔을 中心으로 空間을 構成하는 寺刹의 原形的 規範性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作用하여 이루어진 結果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적어도 7C 중반까지의 우리나라 初期寺刹의 中心性은 塔을 통해서 形式化되었음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皇龍寺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塔中心的 空間形式은 그 이후에도 形式의 差異는 있을망정 계속해서 우리나라 傳統寺刹의 空間을 構成함에 있어서 原形的 要素가 되어 왔음을 그 이후에 創建 혹은 重創되는 寺刹의 形式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

한편, 皇龍寺의 空間形式 變化에서 나타나는 廻廊의 變化 즉, 廻廊이 塔의 重建에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塔의 中心性을 보다 具體化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廻廊은 區分의 機能으로 中心性을 具體化하기 위한 장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建築學分野에서 관심을 가져오던 三金堂의 變化보다는 塔의 中心性에 대한 論議가 塔中心型 寺刹의 空間形式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說明力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지금까지의 考察을 통해 볼 때, 先行研究들의 結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皇龍寺의 重建이 진행됨에 따라 塔의 意味가 약화되고 그 中心이 金堂으로 옮겨간다는 내용은 再考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諸 先行研究에서 제시된 이와같은 結果가 1次伽藍으로부터 2次伽藍으로 變化되어가는 過程만을 놓고 생각한 것이며 정작 중요하게 보여지는 2次伽藍으로부터 3次伽藍으로의 變化過程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塔中心型 寺刹의 空間形式에 대한 보다 분명한 解釋을 위해서는 이 類型에 속하는 寺刹들의 發掘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더 많은 事例에 대한 考察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